하나님

승리를 거둔 교회 사도행전을 통하여

믿는 자의 권세

www.gillministries.com

승리를 거둔 교회

사도행전을 통하여

에이.엘. 과 조이스 길 씀

Gill Ministries

Website: www.gillministries.com

A.L.과 Joyce Gill 의 저서들

당신의 모든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들
패배 당하라고 지으시지 않았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속임수에 대한 승리!

연속적으로 출판된 교재들

믿는 자의 권세
실패를 끝내고 승리를 시작하는 방법

병 고침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병 고침의 능력을 받고 사역함

사역을 위한 은사들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교사

기적의 복음 전파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임을 알게 됨

삶의 모형들
구약 성경을 통해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경배자로 되어감

기도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옴

초자연적인 삶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저자들의 약력

에이 엘과 조이스 길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고 저자들이며 성경 교사들입니다. 에이 엘은 세계 60 개 이상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사도적 사역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 여행을 하면서 수 백만 명에게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그리고 10 만 명 이상의 군중들에게 직접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최고의 베스트 셀러인 그들의 책과 매뉴얼들(manuals)은 7 백 만 권 이상 판매되었고,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저서들은 세계 도처에서 성경 학교나 세미나에서 교재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삶을 능력있게 변화시키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역동적인 설교와, 가르침, 저서, 비디오, 오디오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의 '경배와 찬양 세미나'에서 체험하며,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그 분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담대함과 승리의 새롭고, 흥미 진지한 차원을 발견해 오고 있습니다.

길 부부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의 손을 통해 흘러가도록 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을 훈련시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초자연적인 사역 속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매일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모두를 작동하기 위해서 풀려 났을 때 초자연적인 자연스러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이 엘과 조이스 길은 신학과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에이 엘의 경우 Vision Christian University 의 신학 과정에서 신학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기반을 둔 그들의 사역은 예수님과 견고한 믿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보여 줍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권능의 기름부으심과, 표적과 기사 그리고 병 고침의 기적이 수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물결처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쓰러집니다.

거룩한 웃음과 주님 앞에서의 흐느낌의 물결을 포함한 부흥의 표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경외할 만한 나타나심이 그들의 집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 의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부치는 글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선포하셨습니다.감동적이면서, 사도행전의 주제이기도한 이 내용 연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형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계시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매일 매일 삶 속에서 기사와 표적과 기적이 동반되는 새롭고, 더 큰 초자연적인 삶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가르치기 전에 가도행전의 내용이 여러분의 영 속에서 생동할 때까지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경우,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사건들과 장소 그리고 사람들과 진리들과 연관되어 있는 신약의 서신서들을 연구해보기를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적 사역의 모형들과 진리, 그리고 사도행전적 삶의 양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포화 상태로 되게 하면 할수록, 이러한 진리는 더 많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영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책은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 예화는 효과적인 가르침에서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그로 인하여 각 교사마다 자신의 풍부한 체험이나 다른 이들의 체험에서 얻은 예화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은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할 때나 혹은 가르칠 때마다 언제나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 교재는 개인이나 단체 공부, 성경학교 (정식인가가 용이함 - 마지막 페이지 참조) 가정그룹에서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교사와 학생 양쪽 다 이 책을 구입하여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속에 기입하여 넣고 밑줄을 긋고 또 묵상해 보고 소화시켜 놓은 책이 제일 좋은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둘 곳과 해석을 기록하도록 공간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 책은 복습을 위해 빨리 참고내용을 찾을 수 있고 또 다시 그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찾는 것이 용이하도록 고안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구성 형태는 각자가 일단 이 재료를 끝낸 후에 그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한을 썼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 : 26

이 과정은 사역개발체계(MINDS, Ministry Development System)의 형태로 조직적인 수업을 취득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사람들과 사역과 또 학생들의 장래 가르침을 늘릴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먼저 배운 학생들은 이 책을 사용함으로써 쉽게 다른 이들에게 이 과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목 차

1 부(部) – 교회의 탄생

제 1 과 교회의 시작 7

제 2 과 권능의 약속 14

제 3 과 권능의 약속 23

제 4 과 예수 이름에 대한 전투 29

제 5 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 39

제 6 과 오늘날을 위한 예(例) 53

2 부(部) –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역들

제 7 과 갈대인 베드로 62

제 8 과 반석인 베드로 73

제 9 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83

제 10 과 복음을 전하는 자 빌립 91

제 11 과 사울의 회심 97

제 12 과 바울의 사역과 그의 죽음 106

제 13 과 우리는 승리를 거둔 교회 120

1 부(部)

교회의 탄생

제 1 과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 서론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를 거둔 교회에 관한 이 연구 과정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다루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한 성령행전 또는 성령의 권능을 통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배움이 없이는 교회의 시작이나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단지 역사서로서만 연구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행전은 오늘날의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분의 계획에 관한 지침서(manual)로 연구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게 된 방법이 오늘날 복음전파의 한 모형(pattern)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모형(pattern)과 방법(methods)을 변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초대 교회 제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부분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 12 장, 베드로와 그의 사역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였습니다.

13 장 – 28 장, 바울과 그의 사역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주요 사역들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사역해야 할 지를 가르쳐 주는 본보기들로써 몇 가지 중요한 사역들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 베드로
- 스데반
- 빌립
- 바울

사도행전의 배경

일곱 개의 주요 교회들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일곱 개의 주요 교회들은 오늘날 우리가 터어키로 알고 있는 나라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터어키 밖에 있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자(著者)인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著者)는 안디옥 출신이며, 헬라 의사인 누가였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을 쓴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의 글을 읽으며 확실히 조사한 후에 글을 썼습니다.

눅 1:1~4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자신에 관해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많은 여행을 함께 다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 16:10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는 누가가 '외과의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골 4:14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고, 누가 혼자서만 바울 곁을 지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딤후 4: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기록 연대

사도행전은 주후 63~65 년에 기록되었습니다. 30 년에 걸친 사역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과정은 사도행전에 대한 완벽하고,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위한 연구 과정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에 중심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첫번째 언급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그 진리 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 교회와 후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한 교회만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관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정부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친히 교회를 세울 것이고 사탄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울실 교회는 강력하며,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기록

28 장으로 이루어진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교회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성령강림
- 성령의 권능(두나미스)
- 성령의 처소
- 성령께서 오신 목적: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막 16:15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위임 명령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하도록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지상 위임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막 16:15,17~18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전 세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들에게 표적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 16: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은 표적과 기사가 따라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승리의 모든 것!

마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
-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
- 우리는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어디에 우리를 보내실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뿐 만 아니라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 이 모든 것들은 이 지구 위에 발붙여 사는 만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성령의 소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패배 당하지 않는 강력한 교회를 세우신다면, 교회 시작의 모형(patterns)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세상에 계신 이유를 아는 것은 교회 발전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것입니다.

보혜사(The Counselor)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실 수 있도록 자신이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6:7~11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The Convictor)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고향과 외곽지역 그리고 땅 끝 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행 1:4~5, 8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계시된 삼위일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관해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의 유리한 관점에서,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둘 다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삼위 하나님의 제 2 위격(位格)이 계시됩니다. 우리는 성자의 계시 –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의 제 3 위격(位格)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좀 더 친밀히 아는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인도하심

요 16:13~15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가르치시고 명령하심

행 1: 2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행 8:29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행 10:19~21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선택하시고 계시하심

행 13: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힘 주시고 위로하심

행 9:31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권능을 주심

➢ ***증인이 되도록***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방언을 말하도록***

행 2: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꿈과 환상(visions)을 보도록***

행 2:17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 ***예언하도록***

행 2:18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문 제

1. 사도행전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연구되어져야 합니까?

2. "지상 위임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지상 위임 명령의 여러 측면 을 목록화 하십시오.

3. 신자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적어도 3 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제 2 과

권능의 약속

무슨 권능?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 능력을 덧입었었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요 16:7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의 원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권능의 원천이셨던 바로 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롬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일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와 똑같은 위대한 권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기는 권능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교회의 중요한 지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의 압도적인 승리의 권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령의 권능

예수님께서 그 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대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 1:4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똑같은 권능

이 능력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혹은 영접한 후에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던 바로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행 19:2, 6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든 이를 위한 권능

예수님과 초대 신자들이 이 권능을 필요로 했다면, 그와 꼭 같이 신자로서의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예수, 우리의 모범

성령께서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해하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

행 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믿는 자들의 모범이십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 선생으로서
- 사역자로서
- 지도자로서
- 선한 목자로서
- 치료자로서
- 통치자로서

- 물세례(=침례)를 줄 때
- 유혹을 만날 때
- 개인적 관계를 맺을 때
- 우선 순위를 정할 때
- 개인적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경우에 있어서
- 권위 아래 있을 때
- 핍박을 직면할 때
- 죽을 때
- 겸손함에 있어서
- 동정심에 있어서
- 사랑함에 있어서
- 겸손함에 있어서
- 동정심에 있어서
- 사랑함에 있어서
- 의로운 분노에 있어서
- 유머(humor)에 있어서
- 슬픔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치기 위해서***

눅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셨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우리도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권능으로 사역하심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으로 배우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통해 먼저 배웠습니다.

행 1: 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모범이 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진정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진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버리심

빌 2:5~7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땅에 대한 모든 권세와 주권 그리고 통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온 우주에 관한 권세와 통치는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창 1:26, 28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도둑맞은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빼앗아 사람에게 다시 돌려 주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한 사람의 권세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완벽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자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 ***마지막 아담이 되셨음***
- ***"사람의 아들(=인자, Son of Man)"이 되셨음***

고전 15: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지구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요 5:25~2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마지막 아담"이자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분의 권리와 특권을 버리셨던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이셨기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어떤 기적도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음을 봅니다.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필요로 하셨더라면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음***

예수님께서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 ***성령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눅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행 10: 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 ***성령 –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곳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권능을 부여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기 위해 오늘날 이곳에 계십니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들이 행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에 의해 제한을 받으심

막 6:1~5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좇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병 고침이 필요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소수만을 고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 많은 불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하다 실패하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합니다.그 이유는 가르침의 부족과 불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장(章)

첫 번째 약속

사도행전 첫 장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술할 때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로 기술하기 시작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누가복음서를 끝맺었습니다.

눅 24:49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제 누가는 똑같은 말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행 1:4b~5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누가는 계속 말을 잇습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교회를 막론하고,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깨어 있었고 소망했습니다.

행 1:10~11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 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의 같은 한 구절에 두 가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를 위한 권능의 약속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게 되는 큰 격려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유다의 종지(終止)

가롯 유다의 문제가 믿는 자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동안 다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가롯 유다에 관해서 얘기를 꺼낸 뒤 그의 죽음까지도 예언의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행 1:20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초대 교회는 죄를 간과하지 않고, 다루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꼭 같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가롯 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심판했기에 징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예언의 글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유다를 대신할 다른 사도를 뽑았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사도를 선택하실 수 있기에 그들은 두 사람을 추천하여, 제비 뽑기를 통해 주께서 합당한 자를 선택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뽑힌 맛디아

행 1:23~26 저희가 두 사람을 천(薦)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들

세례(=침례)를 주시기 위해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고전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하라 하시니라.

내주(內住)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전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엡 1:17~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 ***지혜***

...지혜와 계시의 정신(=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 ***우리의 소망을 알게 하시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 ***기업을 위해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부활의 권능을 주기 위해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문 제

1. 사도행전 첫 장에 있는 위대한 두 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2.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권능을 받습니까?

3.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하시는 4 가지 사역은 무엇입니까?

제 3 과

성령의 오심

성령 세례(=침례)

행 2:1~4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증거인 방언

방언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누가에 따르면, 참석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했으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이 능력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방언은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그들 모두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16: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 *하나님의 선물*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들 중 하나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몸 된 교회의 덕을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방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전 14:2,4,1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 리라.

➢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들 중 하나입니다. 방언은 우리 영으로부터 하나님께 곧장 상달하는 기도와 찬양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언어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언어입니다.

➢ ***자기 자신의 덕을 세움***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덕을 세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방언 기도에 대해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고전 14:13~14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 ***불신자들에게 표적이 됨***

고전 14:22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공공 장소에서 사용할 때는 그리스도 몸 전체의 덕을 위해 언제나 통역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전 14:26~28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 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으로 "메시지"가 주어질 때는, 그것은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방언 통역의 은사와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 ***첫 번째 은사***

방언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첫 번째 은사 입니다. 우리 하늘나라 언어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른 성령의 8 가지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풀어 놓을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해 방해하여 왔습니다. 사탄은 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 못하게 막음으로써 다른 8 가지 은사들로 진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방언 은사나 통역의 은사가 그쳤다고 된 곳을 찾아 볼 수 없고, 이런 은사가 그쳤다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방언 은사는 완전한 것이 올 때 그치게 될 것입니다. –

예수님이 오실 때 –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언어로 이야기 할 것입니다.

➢ ***금하지 말라***

방언 은사는 우리에게 금(禁)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은사입니다.

고전 14:39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성령의 9 가지 은사를 좀더 완벽하게 공부하려면 A.L.과 Joyce Gill 이 쓴* ***Supernatural Living Through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을 이용하십시오.*)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만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 됨(Unity)

창 11:1~6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혼잡케 함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 언어를 가졌을 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후, 인간의 단합(Unity)은 죄를 향하여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혼동을 가져 다 주셨습니다.

창 11:7~8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서로 간의 의사 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해 그들의 단합(unity)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성 쌓기가 그쳤습니다. 이 경우의 그들의 하나 됨은 사탄이 혼적인 영역에서 이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태의 하나됨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혼동을 가져 다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하나 됨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기도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 됨을 이루며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들의 기도 언어로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하나 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한 하나 됨 속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시함에 따라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남

사도행전 어디 한 곳 예외 없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첫번 째는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사역을 하러 나가기 전에 성령의 채워주심을 기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처음으로 임할 때 그들은 오순절 날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행 2: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에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부터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였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행 8: 15~17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그들의 대적자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우두머리 격인 바울이 다메섹에서 더 많은 그리스도 인들을 체포하려고 가던 중에 빛이 그를 둘러 비추였고, 그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사 그에게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행 9: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방인들에게

세 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깨끗케 한 어떤 것에 대해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행 10:44~46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세례는 구원 받는 순간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구원과 성령 세례를 나누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많이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오순절 날에만 한정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또한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세례와 가이사랴에 일어난 방언은 오순절이 있은 후 10 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오순절이 있은 후, 20 년이 지난 후에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행 19: 2b~6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

비둘기

예수님께서 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내려 오셨습니다.

눅 3:22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바람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한 바람과 함께 임하셨습니다.

행 2: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

오순절 날 그들은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보았습니다.

행 2:3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기름

기름은 성령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성령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언급됩니다.

히 1:9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주어 네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물

성령은 "생수"의 큰 물결로 불립니다.

요 7:38~39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문 제

1. 방언 은사를 당신의 말로 정의를 내려 보십시오.

2.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몸에 임하시는 두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찾아 말해 보십시오.

제 4 과

예수 이름에 대한 전투

사탄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믿는 자의 효과성(effectiveness)의 비밀을 알아 냈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때 이에 대적하여 사탄은 모든 전력을 다하여 공격하여 왔습니다.

성령의 권능

믿는 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권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사탄은 성령의 권능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믿는 자들이 삶 가운데서 사용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 또한 두려워 합니다.

막 16:17~18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들은 ...할 것이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행하였기에, 또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믿는 자들을 속이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권세에 대해 믿는 자들이 알지 못한 채 계속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절름발이 거지가 고침 받았음

이처럼 자세히 기록된 예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예화가 제공하는 교훈을 오늘날 사는 우리를 위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 3:1~8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美門) 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오늘을 위한 교훈들

➢ ***가는 도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와 요한은 둘 다 "기도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기도 시간은 오후 3 시 경에 개인적으로 드려지던 정해진 기도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느냐? 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이 말을 자신들의 기도 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변명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 ***성전 밖에서***

이 기적은 성전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Timing)***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본 것만을 단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전 문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걸어 들어 가셨고, 이 사람 옆을 자주 지나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 ***성령에 이끌림***

제자들이 얼마나 빈번이 이 사람 곁을 지나 갔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똑바로 바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관심을 자기들에게 모았습니다.

기적이 우리 손을 통해 일어날 것을 기대하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 하심과 그 분의 때(timing)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 ***기대하는 장소***

그 사람은 기대의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 기대를 창조하였습니다.

➢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주었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 ***남자로 행동을 취하도록 했음***

베드로는 그 사람이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고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은 당사자가 일어서기 전에는 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 손을 잡고는 그를 일으켰습니다. 즉시 그 사람의 발과 발목뼈는 힘을 받았습니다."

➢ ***하나님을 찬양했음***

그 사람은 걷고 뛰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는 그가 본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았습니다.

➢ ***모든 이들이 기적을 알아봤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병 고침이 기적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큰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가져옴***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행 3:15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

먼저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기적이 행해졌음을 확실히 알려 주었습니다.

행 3: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탄의 즉각적인 공격

무슨 권능과 뉘 이름으로?

여러분은 성전의 지도자들이 절름발이가 고침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계속하는 동안, 지도자들은 와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던 첫 질문은 무엇입니까?

행 4:7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 이름에 대한 전투

행 4: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 ***미궁(The Dilemma)***

행 4:16~18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 ***위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 ***명령***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 ***반응***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자 마자 자신들의 동류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였습니다.

행 4:29~30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 ***형벌***

행 5:28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산헤드린 당원들은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아가 말하며 기적을 행하기에 그들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를 주고 매를 때리며, 예수 이름을 사용 못하도록 다시 명령하기만 했습니다.

➢ ***결과***

행 5:41~42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울(바울)과 예수의 이름

다른 사람들을 핍박함

믿는 자들에 대한 첫 핍박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 가해졌습니다. 아나니아에 따르면, 사울이 체포할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행 9:13~14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하거늘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사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사울은 다른 믿는 자들에게 해를 끼친 것처럼, 자신도 또한 예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해를 받을 것입니다.

행 9:15~16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 이름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함

바울은 예수 이름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각오했습니다.

행 21:13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수 이름에 관하여 글을 씀

바울은 예수 이름의 권능을 알았습니다. 그 권능에 맞서 싸우 다 진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이름을 통해 구원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바울은 예수 이름에 관해 글을 썼습니다.

롬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전 5:4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빌 2:9~10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

왜, 초대 교회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기 보다는 오히려 죽으려 했습니까?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이 사용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 이름에 대해 공격을 퍼부었습니까?

믿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임하는 권능을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가져 옴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입니다.

행 2: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행 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승리

우리가 지상 위임 명령을 수행할 수 있고, 온 세계에 구원을 가져 다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입니다.

병 고침

예수의 이름은 병 고침을 가져 옵니다.

행 3: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해,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 16: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엡 5: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단지 믿는 자들만을 위해 예비 됨

예수 이름의 사용은 교회를 위해 예비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은 강력하게 됩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려고 했던 일곱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문제에 빠졌습니다.

행 19:13~16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벌거 벗기고, 피를 흘리며, 패배당함

예수 이름은 부적이나 마력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진짜로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권능은 거의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사용할 때는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높은 경외심의 태도로 대해야 할 이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려고 시도했을 때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예수 이름에 대해 훨씬 높은 경외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행 19:17~18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예수 이름을 악용함

사탄은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수 이름의 그 권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들 중 하나는 예수 이름의 권능을 악용하고, 약화시키고, 훼방하며,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은 자주 욕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불경스러운 말을 지껄이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타 종교의 창시자들의 이름을 불경스러운 욕설로 지껄이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들어 보지 못했습니까?

타 종교 창시자들의 그러한 이름들이나 거짓 신의 어떠한 이름에도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에게는 이러한 이름들을 망신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사탄은 그 이름들을 높이 치켜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과 이름들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음

기독교인들로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 –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 – 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에게는 막중한 책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살후 1:12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유대인들을 나무랬습니다. 똑같은 경고가 "기독교인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롬 2:17~24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악함으로 부터 돌아서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딤후 2: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으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우리는 신약에서 수도 없이 듣게 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단지 예수를 부르고, 단지 그를 믿으라고 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가르침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값 주고 사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신,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도로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믿는 자들은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며,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무기력하게 내버려두신 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내내 발버둥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그의 귀신들에 대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문 제

1. 예수의 이름이 당신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2.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책임들에 대해서도.

3. 스게와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5 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모형들(patterns)과 방법들(methods)을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려고 부지런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려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들과 전통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포함

- ***증거하는 일***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함***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해야 합니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 ***복음을 전파하는 일***

모든 믿는 자는 복음을 전파해야(선포 혹은 나누어야) 합니다.

- ***기적을 기대함***

모든 믿는 자는 기적적인 표적이 따라올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막 16:17~18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 ***봉사의 일(=사역의 일,* the work of ministry) *을 위해 온전케 됨(equipped)***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역적인 임무(the work of ministry)를 위해 온전케 되어져야 합니다.

엡 4: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the work of ministry)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중 사역 – 경칭(敬稱)이 아니라 기능(=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승천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엡 4:8~13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혹은 교사는 교회에서 계급을 나타내는 지위나 경칭(敬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능인 것입니다. 각 사역의 기능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각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 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서의 기능 곧 사역의 은사를 지시하는 "바울, 나 사도는(Paul, an apostle)"라는 말을 자주 말하면서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경칭(敬稱)을 가리킬 수 있는 표현인 "사도 바울은(The Apostle Paul)"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음

고전 12:27~28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세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믿는 자들이 봉사의 일을 위해 온전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이르도록 세워지려면 모든 5 중 사역 은사들은 각 지역 교회에서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종들

우리가 5 중 사역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범으로서, 5 중 사역의 은사들을 함께 가지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주신 그 예(例)가 바로 종(從)의 예(例) 입니다.

요 13:3~5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

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 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12 절~17 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도

정의

"apostle"로 번역된 헬라어 "apostolos(아포스토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使徒)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실제적인 가르침과 기초적인 가르침으로 현존하고 있는 교회를 강화하며, 교회를 세우는 권세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성령에 의한 계시적인 지식과 권세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역할 것입니다.

기능 혹은 하는 일(functions)

그는 모든 사역 은사들(역자 주: '직임의 은사'라고도 함)이 하는 일들을 할 것이며, 성령 9 가지 은사 모두를 사용합니다.

사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으로부터 사역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그리고 병 고침의 기적들이 계속해서 나 타날 것입니다.

그의 사역 은사는 성령의 교통을 통해, 교회와 다른 목회 사역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올바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조직체나 인간적인 다스림의 관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 영적인 관계를 통해, 사도들은 믿는 자들의 삶과 목회 사역 그리고 교회를 속임으로 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없어서는 안 될 어떤 훈계와 책임 그리고 확고부동함을 가져 다 줍니다.

사도직은 장로를 임명하고, 안수하며 집사로 뽑힌 사람들을 추인(追認)할 때에 선지자직과 밀접하게 기능을 발휘합니다. 사도는 선지자와 함께, 믿는 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역 은사에 맞게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사도는 안수함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며, 또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 줍니다.

사도는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며,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파송한 지역 교회의 장로들과 다른 사도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도 또한 권위아래 있을 것입니다.

예들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에 대한 좋은 예들입니다.

행 13:2~3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롬 15:20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행 14: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선지자

정의

영어 "prophet"으로 번역된 헬라어 "propheteuo(프로페테우오)" 는 "사건을 미리 말하다, 영감(靈感) 하에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명확한 구별점이 있는 사역을 부여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계시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올바른 방향설정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과 비젼을 제공합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사실들을 드러내주며, 책망과 교정, 경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말해 줍니다.

하는 일

선지자는 단지 예언의 은사를 작동하여 사역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상세할 뿐 아니라 정확하며, 더 높은 차원의 예언적 기름부음 아래서 사역합니다. 선지자로부터 나온 말씀은 자주 믿는 자들이 예언할 때 따라오는 어떤 건덕(健德)과 격려와 위로를 뛰어넘는 계시를 포함합니다.

선지자는 영적 기초를 놓을 때나 교회를 세우고, 견실하게 할 때, 자주 사도와 함께 사역합니다.

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아가보는 선지자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행 21:10~11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복음전하는 자

정의

"복음 전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euangelistes"(유앙겔리스테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는 일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 하나님 군대의 최전선에 서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관해 말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고자 하는 심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따르는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는 다른 믿는 자들을 '기적에 의한 복음전파'로 훈련시켜 고, 그들을 타 문화권(他 文化圈) 사역에 동원시키는데 능동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는 모든 교회에서 믿는 자들의 심령에 지역과 국가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젼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복음전파는 모든 믿는 자들의 책임이며 사역이기도 하지만, 복음전하는 자는 이 영역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기름부음으로 사역합니다. 그는 복음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의 주된 책임은 모든 믿는 자들을 준비시켜 복음전파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빌립은 복음전하는 자에 관한 좋은 예입니다.

행 8:5~8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행 8: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목사(목자)

정의

영어 "pastor"로 번역된 헬라어 "poimen(포이멘)"은 "목자, 양 무리를 먹일 뿐 아니라 인도하며 돌보는 사람, 감독자"라는 뜻입니다. "poimen(포이멘)"은 신약에서 18 번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 장에서만 "pastor"(목사)로 번역되었습니다. 다른 17 번은 "shepherd"(목자)로 번역되었는데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하는 일

- ***인도***

목자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요 10:4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 ***친밀한 관계***

목자는 그의 양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사 40:11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 을 버리거니와

➢ ***양들을 먹임***

목자는 양들을 먹입니다.

요 21:15~17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교사

정의

헬라어 "didaskalo(디다스칼로)"는 "가르치는 자(instructor)"라는 뜻입니다.

교사는 그의 가르침으로 다른 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교사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성경해석과 설명 그리고 교리적인 가르침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자를 삼습니다.

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일

교사는 새 신자들을 가르칩니다.

➢ ***새 신자들을 가르침***

행 11:21~26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음을 받게 되었더라.

➢ ***믿음을 가르침***

교사는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딤전 2:7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 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 ***성령으로 가르침***

교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칩니다.

요일 2: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일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고전 2: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 ***권세로써***

교사는 권세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마 7:28~29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 ***성령으로 가르침***

교사는 자신의 사역의 초점을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맞춥니다.

딤후 2: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장로와 집사

장로(감독자라고도 불리는)와 집사는 지역교회에 머물도록 하나님께로 세우신 유일한 두 직분(offices)이다.

빌 1: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장로(감독자)

장로, 즉 감독자의 직분은 지역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기 위해 있습니다. 이들 직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도들에 의해 임명되어져야 합니다.

딤전 3:1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행 14: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집사

집사의 직분은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집사는 믿는 자들에 의해 선택되고, 사도들에 의해 추인되었습니다.

행 6:2~4,6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供饋)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專務)하리라." 하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딤전 3:10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 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직무(역자 주: 직임)를 이해함 – 장로(감독자)가 하는 일

정의

헬라어 “presbuteros(프레스부테로스)”라는 말은 연장자 혹은 손위 사람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 산헤드린 공의원 혹은 회당 지도자들을 가리켰었습니다. 히브리 신자들은 “장로”에 대한 구약 모형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말이 사용되었으며, 신약 교회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행 14: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헬라어 “episkopos(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은 감독관 혹은 관리자 또는 안내자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5 번 사용되었으며, NIV 에서는 일관성 있게 “overseer(감독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KJV 에서는 “bishop(주교)”로 4 번 번역되었습니다. “overseer(감독자)”라는 말은 실제적인 번역입니다. 헬라파 신자들이 기꺼이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영적 지도자에 관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가장 빈번히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행 20:28a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는 일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두 단어 사이에 성경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같은 직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각 지역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지역 교회 간에 있어서도 교회 계급조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 교회는 독립적이며 자율성이 있었습니다.

교회 정치(Church government)는 사람들의 조직체나 협회 혹은 교파(敎派)라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교회의 장로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였습니다. 지역교회는 파송하는 몸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지 결코 다른 지역 교회를 조종하거나 다스리며, 제한하는 “모(母) 교회(mother church)”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놓고 교회를 세웠을 때,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깊은 영적인 유대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유대 관계들은 교회와 교회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 고리였습니다. 타 교회들이나 교파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 중 사역자로 기능을 했던 사람들과의 연결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역 교회를 세울 때는, 먼저 사도와 선지자 사역에 의해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그 지역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 장로들은 그 지역 교회의 일들을 바로 잡는, 다스리는 몸이었습니다.

딤전 5: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오중 장로들

오중 사역자들은 모두 다 장로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벧전 5:1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예할 자로라...

요삼 1:1 장로는(THE ELDER)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를 주셨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봉사의 일을 위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다 함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들 사역 기능들을 결코 같은 하나의 "직무(office)"로 일컫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각 사역 기능들은 교회에서 같은 한 "장로"라는 직무(역자 주: 직임)로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사역

장로들은 감독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양 무리들을 각 지역 교회에서 돌보고, 먹이기 위해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벧전 5:1~3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예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들은 5 중 사역자들이다

에베소서 4 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5 중 사역 은사를 받은 자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확실한 은혜와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양 무리를 돌보고 먹이며, 감독하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5 중 사역의 은혜와 기름부음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지역 교회의 장로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5 중 사역자로 부르신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경적인 장로직에 대한 자격들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교회의 일들"을 바로 잡는 책임이 이들 장로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딤전 5: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장로들의 자격들 중 하나가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지만, 모든 장로들이 지역 교회 내에서 설교나 가르치는 사역 은사로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하는 일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기초가 놓여지고, 지역 교회에 장로들이 임명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목사와 교사의 기능을 하도록 택함 받았던 사람들은 임명되었고, 승인되었으며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다른 장로들의 안수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사역으로 제자화 되었을 때, 복음 전하는 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또한 임명되었고, 승인되었으며 장로들의 안수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전하는 자는 지역 교회 내의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고, 동원하여 기적 복음전파로 밖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5 중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에 의해서만 성숙될 수 있고,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수석 장로 혹은 지도자급 장로(Leading Elder)

그러므로 각 지역 교회에서 장로로 뽑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5 중 사역 중 하나를 수행하도록 부르신 자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지역 교회의 장로직이 결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뽑으셨던 것처럼, 언제나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가리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역 교회의 "천사(=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 ***"천사" 혹은 사자(使者)***

계 2: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 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 ***야고보, 수석 장로(a leading Elder)***

야고보는 지도자급 장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장로들을 인솔하였습니다. 모든 장로들은 교리 문제 하나를 심사숙고하기 위해 사도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행 15: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행 15:13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모든 장로들이 문제화되었던 교리문제를 심사숙고 하는데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을 해야만 했던 사람은 다름아닌 지도자 곧, 지도자급 장로인 야고보였습니다.

교회에서의 지도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head)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머리아래, 지역 교회를 관장하는 머리(headship)를 제정하셨습니다. 이 머리는 "교회의 일을 바로잡고" ,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모든 장로들과 함께 역할을 수행하던 지도자급 장로에서 발견하게됩니다.

➢ ***신약의 모형(pattern)***

교회정치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모형은 신약 모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모형을 바꾸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에 그의 교회에게 5중 사역자들을 복직(=회복)시키고 계십니다.

➢ ***갈등없는 변화***

우리가 이 계시를 받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이런 변화를 시도하기 앞서 지역 교회에서 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갈등과 다툼의 가능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회정치에 관한 결정들은 그 교회의 장로들과 지도자급 장로와 함께 더불어 사도(=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로 승인된 사람이 내려야 할 것입니다. 믿는 회중들 사이에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게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마 23:6~12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모두 형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두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도인 바울은" 이라고 결코 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이라고 그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몸에서 자신이 해야 할 기능을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한 형제라고 일컬었습니다.

벧후 3: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존경하는(reverend), 박사(Doctor), 선생님, 아버지, 목사"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서로 서로 "형제"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예수님조차도 그분의 개인 이름(by His first name)으로 통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서로에게 종들입니다.

직무(Office, 역자 주: 직임 혹은 직분)를 존경하라

우리가 분명 경칭(titles)을 사용하여 서로 서로를 호칭해서는 않아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임(office)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계속해서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5 중 사역자중 하나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그들을 존경심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마 10:40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두 형제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5 중 사역자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로 인식하고, 존경심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을 "형제 야고보"라고 부르기로 선택할지라도, 동시에 우리는 그를 "우리 목사님"으로 올바로 인식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런 똑같은 태도가 다른 사역 은사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5 중 사역자와 교회정치에 관한 주제에 더 심도깊은 가르침을 받으려면 A..L. Gill 이 쓴 ***The Ministries Gifts(사역 은사들)****를 공부하라고 추천합니다.)*

문 제

1. 에베소서 4:8~13 절에 나타난 5 중 사역의 주된 기능은 무엇입니까?

2. 5 중 사역 은사들이 무엇이며, 각 사역 은사의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3. 지역 교회에서의 장로들과 집사들의 기능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제 6 과

오늘날을 위한 예(例)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신약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관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쓰임 받는 도구들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수 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지상 위임명령을 들어 왔고, 그들 자신의 힘(strength)과 능력 그리고 지혜로 가서(go), 그 일을 수행하려고(to do it) 하였습니다. 수 년 동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조직적 방법들(methods)과 전통들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관해 말씀하셨던 두 번째 것은 음부의 권세(사탄의 모든 정부)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교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곳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세례(=침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 "건설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도함과 가르침 그리고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눅 3:16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14:16~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심

어느 누군가가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진짜 교사는 정말로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는 있으나, 그 사실들을 듣는 자들에게 가져 다가, 그것들이 듣는 청중들 개개인의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울이 성경 학교에서 가르치며 2 년을 보냈을 때, 아시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행 19:9~10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퍼지게 하며, 그리고 힘있게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행 19: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인내

바울은, 사탄이 그에게 무엇을 던지든 상관없이, 계속 성장해가던 믿는 자의 가장 두드러진 예(例)들 중의 하나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고후 11:23~27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 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희생 대가로 치른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행 21:10~13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기사와 표적, 기적

이전 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 그리고 기적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행 19:11~12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진정한 회개

행 19:18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배가(倍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해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분이 하셨던 일들을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믿지않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울입니다.

시 105:1~2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사 8:18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signs)와 예표(wonders)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후,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하려 하였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찾으려 하는 것은 사람의 영속에 그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이 지금 찾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능력의 나타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5:19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모든 믿는 자는 즉각적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의 경험 –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였는지 – 우리 삶에 있어서의 평강 – 우리가 본 기적들 –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 에 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따르는 기적적인 표적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계속해서 증거할 때, 세상의 영혼들은 기적의 복음 전파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 19:17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일곱 가지 세례들(=침례들)

"세례(=침례)"라는 말은 전적으로 무엇과 동일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세례는 모두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 모세의 세례
- 요한의 세례
-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독특한 세례)
- 불 세례
- 성령의 세례(of Holy Spirit) – 예수 몸으로의 (into the body of Jesus)
- 예수님에 의해 성령으로 행해지는 세례(in the Holy Spirit by Jesus) – 증인의 능력 (the power to witness)
- 물 세례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 됨을 증거하는)

모세의 세례

고전 10:1~4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 3:11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독특한 세례였습니다. 비록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회개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논쟁했었습니다.

마 3:13~16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 때로부터 줄곧, 기적들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불 세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마 3:11b,12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 세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the works)인 "쭉정이"는 불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되고, 오직 성령의 진짜 열매인 "알곡"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세례 (By Holy Spirit)

우리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께로 세례를 받습니다.

롬 6: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고전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딛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님에 의한 세례(By Jesus)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성령께로(into the Holy Spirit) 세례를 받습니다.

눅 3:16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행 1:4~5, 8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물 세례

물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있어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입니다.

롬 6:3~4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명령하신 바 된 세례(침례)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행 2:38~41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세례받은 에디오피안 인

행 8:36~39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欣然)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계속되는 모형(pattern)

- ***특권***

행 10:47~48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사람들이 구원 받고 나서,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 ***사마리아 사람들***

행 8: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 *루디아*

행 16:15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 ***간수***

행 16:33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즉시로(역자 주: 헬라어 원어에는 '즉시로' 라는 말이 있으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말이 빠져 있음)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 ***회당장***

행 18:8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 ***고린도 사람들***

행 19:5 저희가 듣고(들었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명령함***

행 22: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문 제

1. 마태복음 16 장 18 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선언하신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은 무엇 입니까?

2. 성령에 의한 예수께로(into Jesus)의 세례와 예수에 의한 성령께로(into Holy Spirit)의 세례의 차이점을 설명하십시오. (역자 주: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 몸으로의 세례와 예수님에 의한 성령 세례의 차이점)

3. 물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2 부(部)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역직들

제 7 과

갈대인 베드로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의 베드로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어떤 제자들의 삶보다도 베드로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 리더격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언제나 이름 목록들 중에 처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히, 용기를 내어 말한 이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담대하였고, 자신에 찼으며, 용감했으며, 솔직했고, 충동적이었으며 그리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변화하였고, 때때로 진취적이었을 뿐 아니라 경솔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

베드로는 세례(침례) 요한의 추종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목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에 대한 첫번째 언급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셨을 때입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 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본성처럼, 갈대는 바람에 이리 저리 흔들거립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체를 통해 시몬과 베드로를 번갈아 가며 그를 부르셨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의 이름을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셨습니다.

요 1:35~42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십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하고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뀜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기적적인 고기잡음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일들을 읽을 때, 때때로 우리는 그 기적들에 너무 많은 관심과 즐거움을 기울인 나머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킨 결과를 잊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으로 이용하셨습니다. 배를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지게 갖다 댄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와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가르치시기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일지라도,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깨달았으며, 예수께서 주(主)이심을 인식했습니다. 즉시, 그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눅 5:1~11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 ***축복이 임함***

6~7 절: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8~11 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배를 향해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를 보고 두려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나타남을 볼 때, 상당수의 믿는 자들이 보이는 첫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베드로 만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배에서 내려, 물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위를 둘러보고서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험스러운 상황 속으로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갔었습니다!

마 14:25~33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

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는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 많은 수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요 6:67~69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신 자신줄 믿고 알았삽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You are Christ)

베드로는 열 두 제자들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몇몇 기회에, 예수님께 답변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선지자로 받아들였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야로 고백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마 16:13~20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너는 베드로이고,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점에 유의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바람에 흩날리는 갈대 시몬이 아니라)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의해 확증된 이 계시의 큰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와 묶고, 푸는 능력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신자들, 곧 제자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는 단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위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책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베드로에게 계시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를, 즉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였을 때, 베드로는 혼적인 영역 속으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에 악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예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해야만 했습니다.

마 16:21~23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불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믿음의 사람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하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자신이 둘러싸여 있어야 됨을 아셨습니다.

막 5:35~42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훤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훤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변형되심을 목격함

베드로는 여러 번, 열 두 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구별되어 뽑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마 17:1~5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와 물고기

세금을 거두는 이가 베드로에게 왔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 처리되었습니다.

마 17:24~27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 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오르는 첫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 그것으로 세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해 안되는 일을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였음!

문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몬을 불러내어, 장차 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 ***지나친 자신감(overconfident)***

눅 22:31~34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멸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 ***자랑하는 마음(boastful)***

마 26:31~35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

➢ ***예수님에 의해 뽑힘***

시몬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함께 동산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며 깨어있도록 뽑혔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또 다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줄곧 잠만 잤습니다.

마 26:36~4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 ***말고의 귀를 상하게 했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싸우며 죽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그가 이해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일이었습니다.

요 18:10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음

마 26:56b~58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좇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막 14:66~72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 쬠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黨)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쓴 유일한 책은 베드로전후서 입니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베드로의 지도하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부인(否認)에 관한 이야기가 모든 이들이 읽기 쉽게 분명하고도,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단지 유다보다 단지 조끔은 더 나은 자로 역사 속에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베드로의 생애는 용서와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연구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와서,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녀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달려 갔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 갔습니다.

요 20:1~10 안식 후 첫 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가에 따르면, 한 천사가 무덤에 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 그녀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제자들이 거기서 주님을 볼 것이라'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막 16: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베드로는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주님을 뵌 첫번째 제자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까지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그 애기를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눅 24:34 말하기를,"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고전 15:3~5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세 번에 걸친 고백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요 21:15~19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 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이미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세 번 말함으로써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요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 속에 찾아 오셨을 때, 그는 평범한 일꾼인 어부였습니다. 3 년 동안, 매일 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는 사역을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삶의 비밀은 헌신입니다. 베드로는 전적으로 자신의 삶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일, 자신의 친구들, 자기 시간 모든 것을 예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헌신된 그릇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문 제

1.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가 받은 초자연적인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2. 베드로의 믿음의 한 예를 말해보십시오.

3. 베드로의 실패의 한 예를 말해보십시오

4.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확증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제 8 과

반석인 베드로

베드로의 사역의 시작

베드로는 믿음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그에게서 요동하는 믿음을 결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오순절 날,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베드로 곧, 반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 주는 모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앞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주목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역 장소

베드로의 사역은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더 치중되었습니다.

갈 2:7~8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특정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로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를 위해 특별한 사역 장소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 창녀들, 부랑자들, 악용 당하는 여인들 즉,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국가나 종족들에게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역에서 큰 권능과 효율성을 경험할 것입니다.

첫번째 설교
행 2:14~41

베드로는 오순절 날, 중요한 설교자였습니다.

행 2:14 베드로가 열 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첫번째로 기록된 기적
행 3:1~11

요한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 첫번째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문에 있던 절름발이를 고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행 3:1~9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첫번째 핍박
행 4

이 기적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 수는 남자만 5,000 명에 달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번 핍박에서도 주요 대변인이었습니다.

행 4:7~8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권세를 행사함
행 5:1~11

성령께서 죄와 속임으로부터 교회를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행 5:1~2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지식의 말씀을 행사함

3~6 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었음***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정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7~9 절: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결과가 옴***

10~11 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두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한 그 두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서 진실무망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합니다.

➢ ***악을 분별함***

교회는 교회 내에 있는 악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하여 베드로에게 경고하셨듯이, 꼭 같이 성령님께서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에 대해 경고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행사하였습니다. 그는 돈과 관련된 속임을 알았습니다. 재산을 팔라고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믿는 자들의 몸에서 어떤 "지위"(position)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거짓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죄는 돈의 얼마를 숨긴 것이 아니라 성령께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그의 아내가 들어 오기까지 3 시간 정도가 있었는데, 그 동안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당한 나머지, 죄일지도 모르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림자 사역"
행 5:12~16

베드로를 통해 흐르던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나 커서 그의 그림자조차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 5:14~16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국제적인 사역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지역을 벗어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사역하였습니다.

사마리아
행 8:14~25

➢ ***사람들이 세례(침례)를 받음***

행 8:14~17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였고, 그들은 성령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고향 市)과 유대(고향 지역)와 사마리아(우리가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사역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의 모형을 주목하십시오.

➢ **분별된 악**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권능을 보았을 때, 그는 그 권능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직설적이고, 핵심적이었습니다.

행 8:20~23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영 분별의 성령의 은사를 행사하였습니다.

룻다

행 9:32~35

베드로가 여행했을 때,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았고, 그 본대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행하라고 이미 위임하셨습니다.

➢ ***애니아가 고침을 받음***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러 갔을 때, 그는 거기서 8 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고 말하자 그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주께 돌아 왔습니다.

욥바

행 9:36~43

➢ ***도르가가 다시 살아남***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도르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알았으며 똑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행 9:36~42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어째서 예수님께서 부모들과 세 명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그 방에서 내보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을 배제시키셨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했습니다.

믿음은 공감(共感, compassion)에서 역사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sympathy) 혼적인 영역에서는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본 것을 단지 행하셨다고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받아, 그래서 풀어 놓아지는 믿음의 은사를 받을 때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가이사랴

행 10

➢ ***환상(The Vision)***

베드로의 주 부르심(main call)은 유대인들에게 였습니다. 또한 그는 또한 이방 세계의 문을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과 그 환상을 통해 온 가르침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나 혹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분의 신실하심(faithfulness)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해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꺼이 허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임무(mission)를 갖고 계셨고, 이 편견은 깨어졌습니다.

행 10:10~23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한대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음*

행 10:24~25, 27~28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들은 이야기를 계속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정말 누구 이신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행 10:43~46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의 보고(報告)

행 11:1~18

베드로는 사람의 전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들' 곧, 자신이 받은 계시와 자신을 찾아 온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들에게 가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 받고, 성령세례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행 11:17~18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로 인해, 사도들은 구원이 단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남

임박한 죽음

행 12:1~19

예수님께서는 자주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 따로 부르곤 하셨습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그 뒤에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베드로도 또한 자신이 죽을 좋은 기회가 왔다고 분명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행 12:1~16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교회가 중보기도 함

5~7 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풀려남

8~11 절: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메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였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기도가 응답받았음

13~14 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믿지 않음

15~16 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쉽게 간과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감옥에서 풀려나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왔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믿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베드로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여서 그들이 드린 시간의 희생 제사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에게는 야고보와 꼭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일만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의 죽음
행 12:19~23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죽이려 계획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풀려 나게 한" 간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 자신도 곧 죽었습니다.

행 12:21~24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베드로의 죽음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 21:18~19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많은 전통들에 따르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베드로는 곧장 로마로 갔고, 거기서 네로(Nero)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죽기를 거부하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요청했다고 전해내려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를 실증(實證)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는 로마에 있었던 바울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약

베드로의 생애는 기적에 관한 연구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바로 그 때부터 일어난 그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시련 받으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며, 즉시로 담대해져 사람을 두려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음조차도 두려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기름부음이 베드로에게 너무 강하게 임하였을 때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 병자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였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었소, 하나님께서 그가 풀려나오도록 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제

1. 오늘날 당신의 삶에서 의미있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 베드로의 삶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2.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께 거짓말을 했을 때, 그들은 즉시 죽었습니다. 왜 이와 똑같은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3.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제 9 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는 죽음을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有益)함이라** (빌 1:21)

스데반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믿는 자가 박해와 죽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배우게 됩니다.

스데반

스데반, 집사들 중의 한 사람
행 6, 7, 8

우리는 스데반이 집사의 자격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들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 6: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집사로 뽑힌 후 곧 바로,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기적을 행함***

행 6:8~15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 ***반대(opposition)에 직면함***

9 절: 리버디노 구레네 인, 알렉산드리아 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새

➢ ***하나님의 지혜를 가짐***

10 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 ***그에 대한 거짓말이 나돌았음***

11 절: 사람들을 가르쳐 말 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 ***거짓 고소를 당함***

12~14 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함***

15 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죽음에 대한 사건들

➢ ***복음을 전파 함***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그 고소가 사실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 부터 시작해서 메시야의 오심까지 전했습니다. 심지어 메시야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담대하고도 의로운 분노로 그의 설교를 마쳤습니다.

행 7:51~53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이에 대한 훌륭한 예(例)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 성령께서 흘러가도록 허락하셨고,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 ***그들의 분노를 자아냄***

산헤드린 사람들과 대제사장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들의 이를 갈았습니다.

행 7:54~60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 ***스데반은 성령 안에 거함***

55~56 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 ***지도자들은 듣기를 거절함***

57~58 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함***

60 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은 첫 순교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초대 교회 성도들

에 대한 극심한 핍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성도들이 여기 저기 흩어졌으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행 8:1~3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행 11:19~21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 ***사울에게 증거됨***

스데반의 죽음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한 인물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행 22:20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스데반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 수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대추수(the great harvest)의 씨가 되었습니다.

요약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지만,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기적은

사도나 다른 5 중 사역자에게만 한정(限定)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스데반의 생애에 반대를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기사와 표적 행함은 종교 지도자들과 불신자들과의 충돌을 가져올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너무나 충만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함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변호하려 하였을 때, 그들은 스데반의 지혜와 스데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령에 대항해 맞설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날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권능의 모형이며, 반대에 직면할 때, 심지어 죽음의 위협의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형입니다.

왜 핍박이 옵니까?

정화(purifies)와 강하게 함(strengthens)은
대가 지불(Disbursement)을 요합니다.

교회는 복음화를 위해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정화되고, 강화되며 대가 지불을 합니다.

행 14:21~22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위협이 되는 강력한 교회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핍박이 수반됩니다. 교회가 태어난 초창기에는 이 핍박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빈번히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옵니다.

기독교가 취하는 자세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성전 예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때(God's time)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실 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전, 그의 교회에 말씀하셨고, 행하셨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하고 싶으시고,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과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꺼이 변화되어야 하며, 지난 날의 모형들을 사수(死守)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강력한 몸(a powerful body of believers)은 오늘날의 헌신되지 않은 그리스도

인들에게 여전히 위협이 됩니다. 핍박은 자주 이들 그룹들로부터 옵니다.

또한 헌신된 그리스도 인들은 수 백년 동안, 힘없는 교회를 맞서오고 있던 악의 세력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핍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로부터 올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즉 강력한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수 천 명의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핍박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핍박의 영역은 다양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믿는 자들이 감금이나 심지어 죽음까지 대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직업이나 가족을 잃는 핍박을 당합니다. 혹은 친구를 잃거나 그 공동체에서 지위(ststus)를 잃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대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나이다."

마 5:43~45a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용서에 대해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임종 시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스데반, 우리의 모범(Example)

➢ ***핍박자들을 용서하라***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그가 한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는 강력한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까지 갈 정도로 상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전(全) 교회사(敎會史)를 통틀어 많은 이들이 순교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 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 ***용기를 가져라***

대부분의 우리들은 스데반과 같은 용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스데반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곱 집사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그 때 "그를 책잡을 만한" 그의 삶 속에 숨겨진 죄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심*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죽음에 맞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 가르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을 계속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고, 단지 기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에만 만족했었더라면,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을 자신들에게 끌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 *복음은 논쟁을 불러 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간의 교제를 가지는 것에 대해 정말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교훈하신 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 놓기 시작할 때, 논쟁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논쟁하려 하거나 혹은 논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논쟁하게 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문을 열어 놓아 나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논쟁을 우리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우리 자아(self)가 차지할 만한 장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름은 핍박을 가져 옵니다

오순절 직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과 그 분의 부활 하심의 권능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그들의 질문들에 대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명령을 받았으며, 매맞기까지 했을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 분의 부활하심의 권능을 줄곧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요한 – 모본(模本)들

➢ ***협박을 거부 함***

그들은 협박을 거부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용기를 보았을 때, 그들은 놀랐으며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행 4:13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 ***기적을 행하는 권능으로 행함***

행 4:16~17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기적을 기대하라

그들은 체포되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의 한 천사가 그들을 감옥에서 끄집어 냈고, 그들에게 성전 뜰에 가, 거기 서서 백성들에게 복음 전체(the full message)를 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은 안전한 장소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장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앞으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았으며 매를 맞고 난 다음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다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 ***타협을 거부함***

그들은 타협을 거부하였습니다.

행 5:40b~42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 ***기뻐함***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 ***순종함***

우리는 큰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행 8:3~4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 ***티끌을 떨어 버림***

행 13:49~52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 ***거절로부터 자유함***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거절 당했을 때, 자신들의 발에서 티끌을 떨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은 그 거절을 뒤에 남겨둔 채, 그 다음 도시로 가야 했습니다. 거절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 지려면 우리는 관련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상황으로부터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들이 즉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졌음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문 제

1. 왜, 스데반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2. 핍박(혹은 박해)의 두 원인을 말해보십시오. 핍박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3. 핍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예(例)를 들어 보십시오.

제 10 과

복음을 전하는 자 빌립

빌립의 사역

빌립에 대한 연구는 하나님을 위해 더욱 일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더욱 효과적이기를 원하는 모든 믿는자들에게 가장 용기를 주는 연구(study)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먼저,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사로 임명되었으며, 마침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러한 변천에 대해 듣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원하는 바를 보십니다. 그 원하는 바가 더욱 예수님처럼 변화해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는 바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길을 여십니다.

집사

행 6:1~7

행 6: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집사를 뽑을 때 스데반을 뽑은 것처럼, 집사란 좋은 평판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빌립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집사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섬겼을 때, 그는 5 중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 복음 전하는 자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행 21:8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스데반의 순교 후,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맹렬히 시작되었고,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알려진 세계의 모든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첫번째 선교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과 그의 부활의 권능을 전하며 모든 지역으로 갔습니다.

행 8: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역에 있어 다양성

빌립의 사역은 성령 충만한 삶 속에 나타나는 사역의 그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주는 한 모본(模本) 입니다.

사마리아로 처음으로 감

행 8:4~25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먼저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 다음은 세상 끝까지 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이 명령의 두 번째 부분에 순종한 첫번째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말했습니다.

행 8:4~8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 ***기적들***

사람들은 이 능력 있는 전도자의 말을 들으려 왔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그의 사역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 절름발이가 고침을 받음
-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났음
-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임
-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음

➢ ***메시지***

기사와 표적들은 청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행 8: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 ***결과***

행 8:14~17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이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음식을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 표적들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문을 열어 주었고,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복음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일, 즉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모본(模本)

행 8:26~40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 남쪽으로 가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빌립은 기적 안에서 걸어갔습니다. 빌립은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total picture)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 남(南)으로 가라고 말했고, 그는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 천사는 빌립이 그 곳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행 8:26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행 8:27~28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아사야의 글을 읽더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God's timing)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만일 빌립이 기다리느라 지체하였더라면, 그는 이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인에게 사역함

에디오피아인을 태운 마차가 지나가려 했을 때, 성령께서 "가까이 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clear picture) (역자 주: 지식이나 지혜의 말씀이 작동될 때 오는 환상) 을 빌립이 받은 것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들었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행 8:29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행 8:30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

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빌립은 그 사람이 이사야를 읽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행 8: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중요한 물 세례(=물 침례)

행 8:36~38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그 때, 빌립이 말하되, "네가 전심으로 믿으면, 세례를 받으라." (역자 주: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음)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습니다." (역자 주: 이 부분도 개역 성경에는 없음)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물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지냄 그리고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그 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testimony)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인 셈입니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옮겨진(transported) 빌립

행 8:39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欣然)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 그는 기뻐하며 그의 길을 간지라**.**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있었던 그곳을 떠난 뒤, 아소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발을 뗀 그곳에서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행 8:40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신약 시대 사역의 모형

봉사

빌립은 신약 시대 사역으로 풍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는 자의 모본입니다. 먼저, 그는 종과 같은 자세로 순종하였습니다. 집사가 된다는 것은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빌립은 종이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행자였습니다.

요 13:14~16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기사와 표적

우리는 기사와 표적 그리고 기적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압제 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행 8:6~8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믿음을 건축하라

기사와 표적은 구원을 위한 믿음을 풀어 놓아 줄 것입니다.

새 신자들은 그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시되었다는 증거로 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행 8: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행 10:47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권능으로, 그들 또한 기적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팀 사역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도우러 갔습니다. 빌립은 팀 사역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사도급의 팀(the apostolic team) 사역에 의해 사마리아에 기초가 놓여질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혼자 사역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본 교회의 장로들에게 복종하였습니다. 다른 5 중 사역자들과 함께 균형을 잡아 가면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 년 후

우리는 20 년 후의 빌립에 대해서 한번 더, 읽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행할 때, 그는 복음 전하는 자인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행 21:8~9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 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요약

빌립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집사로 뽑힌 일곱 집사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후, 그는 복음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였습니다. 먼저, 그는 집사로 식사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의 복음 전파로 움직여 갔습니다. 그는 천사에 순종하여 어떤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음 길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자연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20 년 후에도, 그는 여전히 복음전하는 자로 남아 있었고, 가이사랴에서 그의 네 딸과 함께 사역하고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실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인 빌립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를 원한다면 존 에스겔이 쓴 **Miracle Evangelism Study** 을 참조하십시오.

문 제

1. 빌립의 첫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2. 빌립의 삶 속에서, 그를 집사에서 복음전하는 자로 옮겨 놓은 단계(steps)들은 무엇이었습니까?

3. 사역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을 때, 어째서 빌립이 오늘날 우리의 모본(模本)이 됩니까?

제 11 과

사울의 회심

바울의 배경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서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흥미로운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으며, 로마 시민이었고 헬라 도시인 다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양육 받았고, 훈련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비추어 볼 때, 로마 지혜뿐 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 그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헬라어와 라틴어를 말할 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도 바울은 널리 여행을 많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에서 파생된 것 같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그는 사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회심 후 줄곧 그를 바울이라 부르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봅니다.

바울의 그러한 배경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배경에 대해 좀더 많은 상세한 내용들을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소 출신의 유대인

행 21:39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니

로마 시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음

갈 1:14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히브리인들 중의 히브리인

빌 3:4b, 5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행 23:6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심문을 받노라!"

교회에 대한 사울의 핍박

행 7:57~8:3

사울에 대한 첫 언급

사울에 대한 첫번째 언급은 스데반이 핍박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행 7:57~58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으며, 죽을 때까지 그들을 괴롭혔고, 어떻게 남자와 여자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는지 자신의 말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행 22:4~5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예수 이름을 반대함

행 26:9~11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대제사장의 권세를 얻어 가지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확실히 체포하기 위해 모든 도시를 찾아 갈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 하여금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기 위해 고문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먼 도시까지 기독교인들을 추격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교회를 진멸하려고 함

갈 1:13~14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대 종교에 지나치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

행 9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의 생애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잘못 판단된 열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빛과 소리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 주위를 비추었고, 그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행 9:3~9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강력하고, 드라마틱해서 바

울은 3 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식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환상을 봄

아나니아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하면, 아나니아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자신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행 9:10~16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택한 도구, 사울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 챘습니다. 그는 "예, 주님" 이라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사울이 얼마나 끔찍한

인물인지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가 사울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할 지를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몇 가지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정확한 집과 그 집주인의 이름
- 거리의 이름
- 그 사람의 이름
-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인지?

-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 지를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한 것과 같이, 그는 예수 이름을 위해 큰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함

행 9:17~19a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불신과 종교적 전통이 사울에게서 즉시 사라졌습니다. 순종하였을 때, 바울은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idendification)에 대한 증거로 즉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회심은 우리가 아는 회심경험 중, 가장 충격적인 예들 중의 하나입니다.

- **회심이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다 돌연 변화를 주어,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그의 삶의 모든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행 9:19b~22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바울이 핍박 당함

핍박이 즉시로 바울의 생애에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행 9:23~25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울의 사역이 발현됨(developed)

준비 기간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회심과 예루살렘으로의 그의 첫번째 여행 그 사이에는 3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그 후에 그가 전했던 메시지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갈 1:11~12, 15~19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심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십오 일을 유할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조용한 기간 동안, 교회에 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on hold) 기다리며, 배우며,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중 13 권의 책을 썼습니다. 회심 후, 그는 나중에 그가 가르칠 진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받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용한 시간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때에 신실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 32:8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through)** 역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잘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in)**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첫 번째 여행

행 9:26~30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사울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과의 만남을 거부하였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듯이,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일찍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았고,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행 4:36~37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매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수 없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사도들에게로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후에, 그는 바울과 함께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행 9:26~30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평화로운 시기

사울의 회심과 사울을 죽이려 모의하던 사람들로부터 그가 벗어난 후, 교회는 평안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행 9:31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의 본(本)

그가 있던 곳에서부터 시작 함

바울의 생애는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의 본(本)입니다. 바울은 그가 있던 곳에서부터 시작했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은 즉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가 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나, 자신의 회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렇게 한 후, 그는 하나님께 배우는 일에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가 있는 바로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곳에서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파구(Breakthrough)가 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바울의 사역에 돌파구를 가

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더 많은 헬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행 11:25~26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에 의해 진척 됨(promoted by God)

바울은 선지자였고, 또 교사였습니다.

행 13:1~3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사도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에 있던 교회는 금식하였고, 기도하였으며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 장(章)에서 그들은 사도들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행 14: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완전히 삶이 바뀜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인들을 열광적으로 핍박하는 데서 그들과 한 몸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교훈(doctrines of man)으로 사람에 의해 훈련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에 의해 훈련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이던 그가 그리스도 몸의 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encouragement)가 될 만한 것입니다. 그의 회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무적인 일 (an inspiration)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딤전 1:15~16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문 제

1. 바울 사도의 배경을 당신의 말로 말해보십시오.

2. 회심의 정의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3. 당신이 이 과(科)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바울의 삶의 예(例)와 당신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제 12 과

바울의 사역과 그의 죽음

큰 핍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바울은 완전히 변화(transformed) 되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시련과 시험, 핍박, 도전 그리고 승리에 관한 연구 대상이 됩니다.

사람이 눈이 멈
행 13:4~12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에게 안수 하여 파송하였을 때, 그들은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총독의 시중인 박수 엘루마가 그들을 반대했습니다.

행 13:8~12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궤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바울은 권세 안에서 걸었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 엘루마 안에 있는 악령들이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방(Region)에서 추방당함
행 13:14~52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안 안디옥에 왔을때, 그들은 '백성들

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회당에서 말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메시야가 오셨다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말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서서, 복음을 전문가답게 전하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으로 모세와 선지자들, 다윗과 세례(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들에게 예수를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안식일 날, 거의 전 도시가 그 말씀을 들으려 모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로 가득 찼었습니다. 단지 이방인들만이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던 여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추방하도록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날 때, 그들은 그들의 발에서 티끌을 떨어 버렸습니다.

돌을 맞은 바울이 죽도록 버려짐
행 14:1~20

바울과 바나나는 발걸음을 이고니온으로 옮겼고, 회당으로 갔습니다. 너무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였기에 허다한 무리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지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격동시켰고, 그들의 마음에 독을 탔습니다.

바울과 바나나는 담대하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기사와 표적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사람들은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곧 바울과 바나나를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음모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 도시를 도망치다시피 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정말로 대부분의 우리들이 겪고 싶지 않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한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나를 경배하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군중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여,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몰려들었을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현실을 직면하면서

사도들과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이야기들의 흥미진지하고 놀라운 부분만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들로부터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기 원하시는지'를 배우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우리와 성정(性情)이 같은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많은 시련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하였던 이유는 바로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우리는 패배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마저도 승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각 도시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났고, 예수의 이름은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기 앞서, 우리는 적지 않은 시련과 시험들 그리고 핍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후 4:7~10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통해 기적을 행하는 사역

여기서, 바울 사역의 높은 경지(the high points)를 다 다루며,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연구 과정의 목적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행해야 하는 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모본들(as examples of God's plan for us today)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초대 교회와 후대 교회로 나누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1 세기에 필요했던 것 만큼,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신비한 방법으로 그 은사들을 도로 찾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했던 그 모든 일(anything)을, 바울이 행했던 일(anything)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anything)을 우리도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적인 인도함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로부터 청함을 받기 직전에,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흥미로운 문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행 16:6~7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

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들 나라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만 읽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만큼, '무엇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만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인가(something)를 하도록 – 혹은 무엇인가를 하지 말도록 –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법을 우리는 꼭 배워야만 합니다.

기적적인 환상

그들의 사역 방향(direction)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의 환상(vision)으로

임하였습니다.

행 16:9~11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이자 마게도냐 지방의 제일류 도시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루디아' 라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와 그 집 식솔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장소에 있었습니다. 사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 가에서 만난 사람들은 큰 회중 모임은 아니었지만 기도하는 한 그룹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알아차림

바울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어느 기도 장소로 가는 중에, 어느 한 여자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며, 여러분에게 구원 받을 길을 말할 것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그들의 뒤를 따라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여러 날을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말한 바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관심을 그들에게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문들을 열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영 속에서 괴로워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마침내 그는 그것에 관해 무엇인가(something)를 했습니다.

행 16:16~18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좇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와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하여 바울은 이 여종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operating) 그 귀신(the spirit)을 알아 차렸습니다. 그리고 쫓아 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 분별하는 은사" 였습니다.

기적적인 풀려남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들은 채찍을 맞았고, 매를

맞았으며, 발에 착고를 찬 채 감옥 내실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죄수들에게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보고 여기에 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direction)를 잃어 버린 것 같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마게도냐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그들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행 16:25~30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풀어 놓으시려고 지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풀려 난 사람들은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빌립보를 떠나, 계속 나아가 데살로니가까지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다시 가르쳤고, 다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이 "온 세상에 걸쳐 혼란을 야기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왔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평판(reputation)은 분명 그들과 함께 따라 다녔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그 도시를 떠나야 했고, 바울은 아덴으로 갔습니다.

기적적인 격려

➢ *아덴*

아덴에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논증, 논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교리(doctrine)를 토론하며 예수가 메시야임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욱 더 사나워 졌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바울에게는 낙심이 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행 18:4~6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훼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 ***고린도***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서 똑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vision)으로 바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행 18:9~10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환상은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아, 나는 네편이야. 너는 잘하고 있단다. 계속해서 가르쳐라. 이 성의 어느 누구도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1 년 반(伴) 이상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방법에 있어 변화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의 사역적 접근 방법은 달랐

습니다. 그는 그의 시간을 가르침의 내용(doctrine)에 대해 토론하거나, 복음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부분을 설명하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무리의 믿는 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행 19:2~7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 두 사람쯤 되니라.

그리고는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3 개월 동안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반대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자, 그는 회당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두란노 서원에 데려다가 2 년 동안 매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성경 구절을

볼 때, 바울은 성경 학교를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자신과 똑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 지역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행 19:8~10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시아로 인도하시기 앞서, 그의 접근법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남***

바울은 다소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창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졸다 3 층 아래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행 20:7~11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래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의 사역에 대한 요약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둘러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저는 영예(honor)의 지위를 버렸고, 안전한 미래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을 받아, 몇 가지 언어도 구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에게 여기 한 사람과 저기 몇 사람을 사역하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이 보내신 모든 도시를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매를 맞았고, 죽도록 내버려 졌습니다. 주님, 저는 지쳤고 힘을 잃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습니다!"

바울은 결코 이러한 류(類)의 이야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행 20:19~24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

예언된 바울의 감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는 중에 가이사랴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자인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 아가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찾아 왔습니다.

행 21:10~11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

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바울의 체포
행 21:1~23:22

고의가 아니게 바울이 체포되도록 한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정결의식을 끝마치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동의했고, 마지막 날 즉, 일곱 번째 날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바울이 헬라인 신자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금(禁)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치기 시작 했습니다.

행 21:30~36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감이러라

바울은 폭도들에게 증거함

바울은 계단 위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들은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행 22:22~24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들이 바울을 채찍질하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죄도 정치 않고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한지 물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에게 증거함

로마 사령관은 법적고소 없이 바울을 붙들어 둘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대제사장과 모든 산헤드린 의원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바울은 모든 신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일을 허락 받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factions) 내의 다툼이 너무나 격렬해 백부장은 완력으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오도록 그의 군대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문

행 23:11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바울아!) ;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감금되었지만, 그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 내에서도 특별한 호의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어느 곳이든 간에 그가 증거하는 동안, 실제로 그의 로마 시민권은 그의 보호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군대의 보호
행 23:23~26:32

40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울을 그 도시에서 데려 나가기 위해 백부장은 200 명의 군인들과 70 명의 기마병, 그리고 200 명의 창병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날 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로 그와 함께 갔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에 의해 감금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인, 벨릭스의 아내와 그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할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2 년 동안이나 감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 볼 수 있었으며 바울에게는 많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벨릭스는 은퇴했고, 그를 뒤이어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부치김을 받아, 베스도는 바울을 법정으로 다시 불러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심문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결코 살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로마에서 주님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에게 호소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으로서 그의 권리였습니다.

바울이 통치자들에게 증거함

벨릭스가 바울을 소환했을 때,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 그리고베스도 총독, 높은 계급의 관료들 그리고 가이사랴의 지도자들은 청중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빛에 대해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행 26:28~29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바울의 목적은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풀려나거나 관계없이 늘 똑같았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항해함

재난(disaster)을 만났을 때의 승리(Victory)
행 27

바울은 '율리오' 라는 백부장에게 맡겨져, 배편으로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그 당시의 여행은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 주일 혹은 한 달, 한 겨울 내내 정박하곤 했습니다. 최상의 조건에서조차 로마 행(行) 여행은 수 주일이 걸리곤 했습니다.

➢ ***바울이 경고함***

그들이 그레데 섬에 정박했을 때, 바울은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계속 여행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행 27:10~11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말한 바 그대로, 그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배가 흔들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줄로 선체를 단단히 동여 맺습니다. 그리고 짐을 던져 버리고, 배의 기구를 배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폭풍이 불었고, 그들은 살 소망을 잃어 버렸습니다.

➢ ***"한 명도 손상되지 않을 것"을 예언함***

행 27:21~26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선원들이 구명 보트로 도망치려 했지만, 바울은 백부장에게 갔습니다. 백부장은 이번에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한 대로, 군사들은 거룻줄을 잘랐버렸고, 선원들을 배에 남아있게 했습니다.

➢ ***군사들과 선원들에게 증거함***

행 27:33~37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이백 칠십 육 인이러라.

행 27:41~44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음***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

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멜리데 섬

행 28:1~10

독사의 공격

그들은 멜리데 섬에 좌초되었습니다. 그 섬 사람들은 그들이 옷을 말리고, 몸을 대피는 것을 돕기 위해 불을 피웠습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 한뭇(a pile)의 관목 덤불을 모아 왔습니다.

행 28:3~6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붓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이미 말씀해 두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독사를 집을 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보호하심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보블리오에게 증거함

멜리데의 추장(the chief official)은 '보블리오' 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거기에 있었지만,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행 28:8~9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바울은 로마에서 증거함

행 28:15~31

로마 여행 중, 바울의 지위(status)에 분명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죄수였지만, 그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환영 위원회(committee)

성도들은 바울과 누가가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누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행 28:15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함

행 28:23~25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증거함

행 28:28~29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떠났고 무리 중에 큰 쟁론이 있었더라)

사도행전의 말미(末尾)

행 28:30~31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의 죽음

전통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에게 십자가형보다는 참수형이라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요약

신약 성경의 연이은 책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습니다.그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모본(an example)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자기자신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은 믿는 자의 모본(an example)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회당에 가져갔습니다. 그는 변증했고, 가르쳤으며 필요할 때는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있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두려움이 없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문 제

1. 바울의 첫번째 선교 여행 중 일어난 사건들과 당신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당신의 말로 말해보십시오.

2.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난 초 자연적인 인도(leading)의 한 예(例)를 말해보십시오.

3.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까?

제 13 과

우리는 승리를 거둔 교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 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 선지자들, 목사와 교사들 그리고 복음전하는 자들이 교회가 탄생했던 그 첫 해에 사역했던 것과 꼭 같이 오늘날에도 그런 직임들은 일어나 사역해야 합니다.

그 당시 믿는 자들이 사역한 것과 꼭 같이,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역해야 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초대 교회 성장의 자극제(stimulus)였듯이 오늘날에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초기 신자들에게 주어진 지상 위임명령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막 16:15~20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초대 교회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operated)?

전적인 헌신으로

우리는 지금껏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지경까지도 이르러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전적인 헌신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죽는 것이 더 쉬운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의 관점에서 볼 때, 전적인 헌신은 헌신자들을 시련(trials) 가운데 둘 것입니다.

빌 3: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히 12:1~2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 1: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의 유일한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일 때,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함임을 우리가 진정 믿을 때, 이 세상이나 혹은 영적인 세계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 막아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용서함에 있어서

➢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선택하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는 모든 인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음모한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빌라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분이 직접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거절하고, 죽게 한 바로 그 피조물에 대해서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용서는 우리의 의지의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인격(in one being) 안에 신성(God)과 인성(man)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용서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스테반 역시 자신을 죽이던 사람들을 용서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그 역시 죽는 마지막 순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 ***스데반이 용서를 선택함***

만일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저에게 이같이 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폭언하며 통곡했다면, 혹은 그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 그들을 저주했다면, 그의 얼굴이 빛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그가 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동의하여 거기에 서있던 사울이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 6:14~15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엡 4:31~32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복종함에 있어서

초대 교회의 믿는 자들은 서로 서로에게 복종하였고, 모두 예수님께 복종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 위에 있는 정부들에게 복종하였습니다.

뻗전 2:13~20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순종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저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 정직하게(in total honesty)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순종하려면, 우리는 매일 매일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먼저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어떤 특별한 임무(tasks)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보여 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계속 걸어갈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요 14:15, 21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일 2:3~6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명령(commandments)은 무엇입니까?

- 그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 서로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 서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 교제하기(in fellowship) 위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 온전함으로(in integrity) 걷는 것입니다.

하나 됨으로(with unity)

하나됨이란 우리들 내에 어떤 이견(異見)도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견(異見)들이 있을 시(時), 사랑으로 그것들을 다루어 동의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을 전도하여 예수께로 돌리기 위해, 성령 밖에서 언급된 그 어떤 것, 혹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며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 15 장의 예(例)로 교리(doctrine)에 있어 이견(異見)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마 18: 15~17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들과 동료 신자들 내에 무엇인가가 있을 때, 밟아야 할 3 단계가 있습니다.

- 먼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그것에 관해 이야기 해야 합니다.
- 해결이 안될 경우, 한 두 사람이 함께 그 형제에게 가야합니다.
-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 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빌 1: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 2:2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울에 의하면, 그 권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혜의 메시지
- 지식의 메시지
- 믿음
- 병 고치는 은사(들)
- 기적적인 능력
- 예언
- 영들을 분별함
- 각종 방언 말함
- 방언 통역

우리는 이것들을 성령의 메시지 혹은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부릅니다.

고전 12:8~11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공동의 유익(the common good)을 위해 은사가 필요할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모든 은사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고전 12:4~7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동정녀 탄생 그리고 죄가 없으신 것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희생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죽음과 무덤(the grave)을 정복하셨고, 오늘날 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능력 안에서 사역하려면 그의 이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여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막 16:17b~18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있는 위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 세상의 다른 지역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에 헌신

바울을 한 예(例)로 사용한다면, 그는 그가 회심한 장소인 다메섹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때 바울은 침묵 기간 – 단지 바울과 주님과만 단 둘이 함께 있는 시간 – 중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다른 사람에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사도들은 바울을 다소로 보냈습니다. 바울을 따라 바나바가 왔고, 바나바는 그를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데려 왔습니다. 바울의 첫 선교 여행 후에 그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행 14:26~28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예루살렘으로 돌아 왔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서로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잘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동일한 목적이란 세상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구원 얻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들

교제(fellowship)

➘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에 있어 신실하십니까?

요일 1:3,7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엡 2:19~22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히 10:24~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십일조와 헌물

➘ 당신은 십일조와 헌금을 내는데 신실하십니까?

말 3:8~12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많은 신자들의 경우 돈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있어 가장 힘든 영역들 중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돈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돈의 주제에 대해 많고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한 구절만을 인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십일조 이상의 양(糧)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는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그 필요가 채워진 후 십일조를 시작할거야." "더 많은 수입이 있을 때, 그 때 가서 하나님께 십일조를 할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십일조와 헌금을 해야 합니다.

말 3:8~12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 믿는 자들이 십일조의 필요성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다는 것에 가르침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십일조를 하나님의 창고로 가져올 때 하늘 창문을 열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시는지 않으시는지 살펴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기서 "창고(storehouse)"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병기고 즉 무기를 저장해두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바로 권능이 저장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역 교회와 권능의 사역들에게 우리의 십일조와 헌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판

➘ 지역 교회가 당신을 천거할 수 있습니까?

행 9:27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 당신의 책임감과 온전함 그리고 신실함이 당신 교회의 장로들에 의해 인정 받고

있습니까?

신실함(faithfulness)이란 섬기는 태도와 필요할 때 거기에 있는 것 그리고 당신의 십일조를 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말씀 연구

➘ 당신은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데 시간을 기꺼이 투자합니까?

딤후 2:15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문 제

1.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관한 5 가지 국면을 말해보십시오.

2.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가르쳤습니까?

3. 지역 교회가 당신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이유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거둔 교회에 관한 연구를 끝낼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의 신약 성경은 교회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교회의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순절 날 시작된 교회는

베드로와 그 밖의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성장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그를 뒤이은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고난 받았던 교회는

오늘날에도 교회의 순교자들과 함께 여전히 고난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증하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 성장했던 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사와 표적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행했던 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열방들이 오고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전히 생명력을 띠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의 살아있고, 헌신된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 살아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